

“염불만 열심히 해도 성불”

정토회 ‘염불신행방법론’ 주제로 학술대회

법산스님 **입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처 염해야**

보광스님 **염불과 선 수행 결합한 ‘염불선’ 제시**

정토삼부경 가운데 하나인 <무량수경>에서는 “누구든지 일심(一心)으로 염불하면 극락 세계에 태어난다”고 설하고 있다. 실제로 불자들의 수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염불이다. 하지만 그저 열심히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는 것이 대부분일 뿐 염불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한국정토회(회장 강동균·종이대 교수·사건)는 12일 ‘염불신행방법론’을 주제로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정토회의 한 형태로서 신앙적 측면에서만 다루어온 염불을 학문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염불신행의 이론적 토대를 갖추고 새로운 방법론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다.

첫번째 질문은, 염불이라는 타력 신앙을 통해서도 불자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성불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모아졌다.

강동균 교수는 중생이 성불하는 과정을 그린 <화엄경> ‘십지품’의 주석서인 <십주비바사론>에서 용수가 말한 ‘민악 사람이 일심으로 그 명호를 칭하면 즉 아늑다 라삼막삼보리에서 둘러서지 않는 것을 얻

는다’라는 구절을 예로 들며 “아무리 노력해도, 성불을 이룰 수 있는 위치인 불퇴전(不退轉)으로 나아갈 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도 염불을 통해 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원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보다 적극적이다. 태원 스님은 “성불하는 수행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염불 수행이 부처님의 본원에 입각한 수행법으로, 성불하는 지름길이라 본다”고 밝혔다. 깨달은 부처님의 생각에 틀

입하는 수행자는 자기 스스로 깨치려고 노력할 것이고, 결국 부처의 지위에 오르려는 수행을 통해 그 경지를 성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염불 수행의 종류는 다양하다.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고, 원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석가모니불이나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창명염불이 가장 일반적. 하지만 법산 스님은 “입으로만 부



여래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등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창명염불이 가장 일반적. 하지만 법산 스님은 “입으로만 부

쳐님 명호를 부르고 마음에 관하는 관념(觀念)이 없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원력이 마음에 충만하여 입으로 명호를 부르고 마음으로 관하여, 마음이 부처님

을 염하고 또 염해서 심즉시불, 불즉시심의 경지에 이르러 곧 성불로써 정토가 성취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원 스님 역시 “어떤 염불이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진리를 깨달아 불퇴전에 오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원 스님은 “현재 목적인 정토에 왕생하는 것이지만 정토에 왕생한 후의 목적은 아미타불의 법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데 있다”며 “염불수행자는 먼저 귀의하는 마음을 갖고 ‘나무○○불’ 또는 ‘나무○○보살’이라고 갖추어 불러야만 일체공통에서 해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력적인 선 수행과 타력적인 염불수행을 병행한 ‘염불선’의 수행방법에 대해 발표한 보광 스님은 “간화선 일면도인 한국의 수행 풍토에서 염불선은 새로운 수행방법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현진 기자 jenny@buddhania.com



조선 불화의 조형세계(3)

바다의 관음·산의 관음

우리 나라 3대 관음성지는 낙산사·보리암·보문사이다. 이들 성지는 모두 바닷가에 자리잡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의 관음성지인 닝보우(寧波)의 보타산(普陀山)도 이름만 산이지 실제로 가보면 바닷가의 언덕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있어 관음보살은 바다를 배경으로 영험을 주는 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바다가 아니라 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관음의 이미지가 있다. 당나라 스님 현장(玄奘)이 쓴 <대당서역기>에 묘사된 보타낙가산(布陀洛迦山)을 보

배치하였는데, 산수화로 분류해도 될 만큼 산수의 비중이 높다. 고려시대 수월관음도가 바닷가 암반을 배경으로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산을 배경으로 하는 관음보살은 조선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형식인 것이다.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5. 16세기에는 중국 복송 때 이상(李穡)과 곽희(郭希)에 의하여 성립된 이과파(李朝派) 화풍이 화단에 유행하였다. 이과파 화풍은 울퉁불퉁하게 침식된 산에 두서너 그루의 키 큰 나무가 솟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화풍은 원래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고려에서도 크게 유행

관음보살 응신, 바다보다 산에서 찾아 조선때 새 형식 등장... 산수화의 영향



◇도감사 관음32응신도(이자실, 1550년, 비단에 채색, 235×135cm, 일본 지온인(知恩院) 소장)

하였다. 특히, 수월관음도의 배경이 되는 일반은 거의 이과파 화풍으로 표현되었다. 조선시대에도 이 화풍의 유행은 수그러들지 않았는데, 15세기에는 안견을 비롯한 이 시기의 대표적인 화가들이 이 화풍을 즐겨 구사하였다. 1550년에 제작된 이 불화도 역시 이과파 화풍으로 묘사되었다. 산의 위용이 앞 시기에 비해 다소 약화되고 대신 산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는 변화를 보였다. 그래도 아직 위용이 남아 있는 산 속에는 32응신 가운데 22응신의 장면이

면 산에서 시작된다. 험준한 산꼭대기에 거울같이 맑은 연못이 있고, 그 물이 대하를 이루어 산을 돌아 남해로 흘러가며, 그 연못 옆에는 관자재보살관음보살이 거주한다고 했다.

조선불화에서도 산을 배경으로 하는 관음보살을 만날 수 있다. 바로 도감사 관음32응신도(일본 지온인(知恩院) 소장)가 그것이다. 이 불화는 1550년(명종 5) 인종의 비인 공의왕대비가 인종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이자실(李自實)로 하여금 그리게 하여 전남 영광 도감사 금당에 봉안한 것이다. 관음보살이 여러 신들의 모습으로 나타나 중생을 구제하는 장면들을 가피론 봉우리와 깊은 산속에

배치되어 있다. 이 장면들은 법화경 본문이나 능엄경에 근거하였을 텐데 아직 확실치는 않다. 관음보살이 산 속에 있든 바닷가에 있든 뭐 그리 대수하겠지만 조선초기 사람들은 관음보살과 그 응신이 바다보다는 산 속에서 등장하는 것을 더 선호했던 것만은 틀림없다. 이러한 경향은 이 불화뿐만 아니라 조선초기에 제작된 사이후쿠지(西福寺) 소장 수월관음도, 지온인 소장 오백나한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초기 불화에 산의 관음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경전과 더불어 당시에 유행한 산수회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인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박물관 교수

“원측, 현장 강의 도청” 근거없다

남무희 씨, 자은학파의 ‘도청설’ 이의제기

<송고승전>의 <원측전>과 <규기전>에 실린 ‘도청설(盜聽說)’은 ‘근거 없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주장이 한 소장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남무희(국민대 철학과 강사)씨는 12일 열린 한국고대사학회 68회 정기발표회에서 “열 아홉 살이라는 원측과 규기의 나이 차를 생각해 볼 때 원측이 현장의 강의를 도청했다는 도청설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라 원측의 생애 복원과 그의 정치적 입장’을 발표한 남 씨는 <대주서명사 고대역원측사 불사리탐명배서> 등 원측과 관련된 기록들을 검토해 그의 생애를 복원해 보려는 시도를 했다.

남 씨에 따르면, 신라 원측(613~694)이 당 현장의 강의를 도청했다고 하는 시기는 원측이 36살 무렵, 현장은 당시 17살이었던 규기(632~682

당시 원측 유식학 정통, 규기는 배울 때

를 제자로 받아들일게 된다. 하지만 33세 무렵 인도에서 돌아온 현장을 처음 만난 원측은 이때 이미 유식학에 정통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남 씨는 “원측이 도청했다고 하는 시기에 규기는 학문을 수학하는 시기였고, 원측은 이미 유식학에 정통해 있었다”며 “규기 계열이 자신들을 정통으로 내세우려는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 도청설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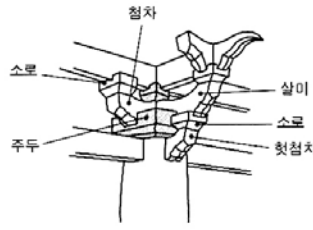
한편 현장은 자신이 세운 서명사의 대덕으로 원측을 임명하는데, 46살이었던 원측은 이때부터 <성유식론소>를 비롯한 많은 저술을 남긴다. 반면 23살 때부터 법어를 배우기 시작한 규기는 25살(원측은 44살)이 되었을 때 현장의 역경 사업에 종사하게 된다. 원측이 각종 저서를 내놓을 때에도 규기는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는 말이다.

도청설은 당나라에서 돌아온 현장이 인도에서 배운 유식론을 제자인 규기에게 강의할 때 신라 원측 스님이 몰래 엿듣고 강의가 끝날 무렵 서명사에서 규기보다 먼저 유식론을 강의했다는 내용. 중국 유식학의 양대 학파 중 규기를 중심으로 한 자은학파가 원측의 서명학파를 비판하는 주요 근거가 되어 왔다.

“고건축 용어 쉽게 정리돼야”

학자·목수마다 달라 고건축 대중화 장벽

용어 정리 위한 종합·체계적 연구 필요



◇공포의 구조와세무명칭.

김도경 박사 주장

전통 건축물의 기둥 위에는 ‘공포’라는 것이 있다. 지붕의 무게를 분산해서 기둥에 전달하는 공포는 장식적 측면에서도 뛰어나지만, 건물의 형식이나 시대를 구분하는 데도 결정적 요소다.

하지만 웬만큼 사찰 답사를 다닌 사람도 헷갈리는 것이 또한 공포 용어다. 일반적인 분류 방식인 주심포, 다포 정도야 이해한다 해도 살미, 첨차, 행공 등 구체적 설명에 이르러면 감조차 잡기 힘들다.

그런데 최근 열린 한국건축역사학회 학술발표회에서 김도경 박사(해라시아 문화연구소)는 이 문제에 대해 “공포 용어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학계에서도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된 탓이

더 크다”며 “연구자들의 쉬운 접근과 대중화를 위해서는 용어라도 쉽게 재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용어의 혼란은 기존에 없던 용어를 새로 만들 때 가장 심각하다. 국내에 남아 있는 건축 관련 문헌 자료는 <화성성역의궤> 등 조선시대 후기 기록들. 조선시대 건축물에는 없는 부재가 고려시대 건축물에 있을 경우 용어를 새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자의적으로 신조어(新造語)를 남발한 결과 오히려 공포 연구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수덕사 대웅전에서 볼 수 있는 ‘헛첨차’란 용어다. 기둥의 앞뒤로 끼여 있는 이 부재를 일반적으로 헛첨차라 부른다. 하지만 첨차는 도리(기둥을 좌우로 연결) 방향으로 쓰인 부재에 붙이는 이름. 이처럼 보기둥을 앞뒤로 연결 방향으로 쓰인 부재는 ‘살미’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인다면 ‘헛살미’가 타당하다. (그림 참고) <화성성역의궤>에는 공포 부재 그림이 있고 용어가 나오는데, 시대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형태만 비슷하면 이름 기준으로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김 박사는 “목수마다 쓰는 용어가 달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며 “공포 용어의 정리는 개인적인 연구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부재 용어의 정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절염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 내릴 때 무릎이 빠지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냉습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신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萬里四柱특강

- 변만리 선생 직강 및 약력
日刊 社會日報 주필, 月刊 陰陽과 韓方 社長
社會團體 韓國陰陽研究會 會長
현대 삼상 대우 롯데 신경 두산 동부 삼미 등
국내외 은행 및 400여처에서 중앙철학과 건강관리 강사

만리사주의 좋은점

시중의 중국사주는 10년을 공부해도 미완성이고, 어렵기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주의 기본인 오행과 상생 상극을 글자대로 풀이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사주의 오행과 상생 상극, 격국과 신살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진리와 상생 위주로 사주와 운세를 종합 무진으로 분석 판단하였습니다.

사주 공부 가 어려우십니까? 만리사주를 배워보십시오. 40년 강의 경력과 노하우를 초보자도 알기 쉽고 흥미진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주는 매우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학문입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배워나간다면, 결코 어려운 학문은 아닙니다.

중요 목차 및 내용

- 육신 - 인물, 인격, 환경, 운명을 판단한다
- 왕석강학
- 부귀빈천의 사주
- 육친관계 보는법
- 공합 보는 법
- 택일 하는 법
- 적성 직업 보는 법
- 인생의 대항로 대운 보는 법
- 12운성과 성격 보는 법
- 일년신수를 혁혁 보는 법
- 운명의 격동기 보는 법
- 당면문제 감점법 - 주택문제, 진학과 고시문제, 기억문제, 재판과 형사문제, 결혼과 이혼문제 외 다수

교재(5권) + 강의 테이프(총 60개) = 85만원
스님 및 포교사 할인판매 (만세책 프로그램 50% 할인 판매 함)
문의 : 016-460-2378 (담당자 직통)
상세한 안내서와 견본테이프 무료 우송함
판매처 : 도서출판 한국음악연구원

현대불교신문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주사 수원 포교당

- 주 지 성관 스님
- 선원장 금산 스님
- 총 무 도현 스님
- 교 무 산성 스님
- 기 획 도림 스님

대중일동

■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92-1
전화 : 031)245-9670~2
팩스 : 031)244-8562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현 지

임원 스님 일동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산 1
전화 : 062)376-3223
팩스 : 062)376-3224